

“패기있게 발로 뛰며 현장 선수들과 교감할 것”

김민주 제4대 광주시육상연맹 회장

17일 회장 선거 단독 출마해 당선
“기초종목 육상 발전에 도움줄 것”

“젊은 회장인 만큼 패기있게 발로 현장을 찾아 뛰며 선수들과 교감하겠습니다.” 김민주(47·사진) 명주상사 대표가 제4대 광주광역시육상연맹 회장에 당선된 뒤 밝힌 소감이다.

광주시육상연맹은 17일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 후보를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연맹 선거운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결격 사유 심사를 한 뒤 기존 선거 예정일인 이날 별도 투표 없이 이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시체육회로부터 인준장을 받아 신임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민주 신임 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광주제일고와 목포대학교를 졸업한 김



회장은 명주태양광발전소를 설립했으며 현재 주식회사 명주상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유도 2단의 실력자이며 광주 생활체육 명주파이터스 야구단 구단주로도 활동 중이다.

김 회장은 “발로 찾아 뛰는 회장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 가서 선수들과 교감하

고 격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회장인 만큼 현장을 많이 찾아가서 대화할 생각”이라며 “육상이 기초종목이긴 하지만 비인기종목이기도 하기에 보여주기가 회장이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한 직접 행동하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이 이번 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나선 것은 핸드볼, 소프트테니스 등 종목별 회장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목 회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다.

그는 “저도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왔고 체육계에서, 육상 종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회장으로 나서게 됐다”며 “육상은 모든 운동종목의 기초종목이고 그만큼 중요도가 높는데 그와는 반대로 관심도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광주상의, 산업안전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성료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3층 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체계구축 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고, 지자체, 정부 등에서 여러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산·관·학이 공동으로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대재해 감축 기반을 다지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됐다.

위원회에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삼

성전자 광주사업장, 금호타이어 등 지역기업의 안전관리 임원과 이부호 광주시 안전정책관, 이계승 광주교용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김무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장, 지역 대학 교수 등 25명이 참석했다.

채화석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산업현장의 안전은 곧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면서 “산업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지자체와 기관, 전문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행복과 안전한 성장으로 열매 맺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김중태 광주나무병원장 “나무의사제도 미흡” 지적

KBS라디오 ‘지금 이사람’ 출연

한국나무의사협회(회장 김판석)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태 광주나무병원장이 언론 등을 통해 나무의사제도의 미흡한 점을 적극 지적하고 나섰다.

김 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부터 30분간 전파를 탄 KBS라디오 임수민의 ‘지금 이사람’에 출연, 나무의사에 도전하게 된 배경, 나무의사들이 하는 일, 나무의사로서 보람된 일, 나무의사제도의 미흡한 점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냈다.

김 원장은 “2018년 도입된 나무의사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방



김중태(오른쪽) 광주나무병원장이 지난 16일 KBS라디오 임수민의 ‘지금 이사람’에 출연했다.

광주나무병원 제공

자체단체와 국가가 관리하는 수목에 대해

서도 의무적으로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도록 산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나무의사제도를 도입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원장은 지난해에도 광주 KBS 별별다방에 출연, 수목 생육환경개선, 외과수술, 진단과 처방 등을 시연해 보이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광산구보에 보호수의 특성, 관리방법 등 ‘보호수’에 얽힌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보호수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광주 서부경찰 상무지구대, 치평동 유흥가 합동순찰

광주 서부경찰 상무지구대는 지난 15일 치평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상무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순찰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무지구대는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야간 시간대 주취자에 의한 폭력 및 교통불편 관련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자율방범대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순찰을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임동섭 서부경찰 상무지구대장은 “시민



광주 서부경찰 상무지구대는 지난 15일 치평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상무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광주 서부경찰 제공

이 안전한 상무지구를 만들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함께 정기적인 합동순찰과 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전화 (062)510-0412
e-메일 edit@jnilbo.com

본란은 애독자를 위한 무료서비스란입니다.
(보낼곳)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5층

전일 게시판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 모집=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010-9092-0343 정원타이거즈 감독)

결혼
▽김선종(전남일보 화순주재)·임선주(북구청) 씨 장남 순호 군, 윤동룡(KG 모빌리티)·오미선 씨 장녀 수민 양=26일(토) 오후 4시30분 광주 드메르 웨딩홀 2층 CN홀

모집
▽BLACKYAK 남도별미산행 7차(우리고장 근교 명산, 맛집 탐방)=완도삼문산(399m)-가사봉(368m) 산행 후 맛집 탐방, 4월26일(토) 오전 7시 블랙야크 상무점, 7시10분 시청 앞, 7시30분 비엔날레 주차장. 문의 (010-3623-1685, 010-9620-2881)

날씨와 생활		해돋이	해질	달돋이	달질
		05:57	19:08	---:--	08:44
오늘의 날씨 (최저/최고 기온)					
자료 : 기상청·웨더아이					
광주·나주 담양·화순	☀ 15/26	무안·함평 장성·영광	☀ 12/21	목포·해남 신안·진도	☀ 14/19
순천·광양 곡성·구례	☀ 13/25	장흥·영암 강진·완도	☀ 11/25	여수·보성 고흥	☀ 14/20
전국 날씨			주간 날씨		
서울	☁ 13/21	대구	☀ 15/29	19일(토)	20일(일)
대전	☀ 15/26	제주	☀ 18/24	21일(월)	22일(화)
물때			생활 기상 정보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미세먼지	외출지수
04:46	10:39	00:49	07:23	우산지수	
16:37	22:23	12:34	19:00		
흑산도	완도	나뭇잎		교외로	지침할 필요
				드라이브	없습니다